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 연구

박 지 순*

Abstract

Park Jisoon. 2015. 6. 30. **A Study about Educational Contents of Hao and Hage Styl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59, 53-81.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Hao and Hage style in Korean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and suggest proper contents for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both corpus data and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result of corpus analysis shows next three points. Firstly despite big decline in use some final endings of Hao and Hage style still used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econdly, Some final endings mainly appeared in certain context showing specific functions. Thirdly, in written language final endings of Hao and Hage style are used as ‘yesa-nopim’ and ‘yesa-natchum’. These points suggest that Hao and Hage style are supposed to be taught to Korean language learners up to their proficiency level and purpose of learning. Also the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shows that contents of Hao and Hage style do not correspond with one another. Some endings such as ‘-upsida’ are appeared not showing real usage as wel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Hao and Hage style be taught in differently in contents and methods for proficiency level and purpose of stud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ey words】 하오체(Hao style), 하계체(Hage style), 상대높임법 교육(relative honorification education), 한국어 교육 문법(grammar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말뭉치 분석(corpus analysis)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회 제32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길고 다듬은 것이다.

1. 서론

한국어 비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국어 교육에서나 높임법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이은희, 2004:224; 구분관, 2008:745; 박지순, 2014ㄱ:88, 박지순 2014ㄴ:78). 상대높임법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비롯한 상황 맥락을 언어로 부호화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발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때로 메시지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한국어 비모어 화자들에게 상대높임법은 학습이 어려운 문법 범주인데, 그 이유는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이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므로 적절한 서법과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고려해 종결어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박석준, 2005:86; 박지순 2014ㄱ:87). 학습의 어려움이나 중요성, 학습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높임법은 교육 내용 선정과 위계화, 교수 방법 등은 국어 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문법에서 상대높임법 체계 및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국어 교육 문법서나 교재마다 상대높임법 체계 및 교육 항목, 내용 기술 등에 차이를 보인다(박지순, 2014ㄱ:87; 박석준, 2005:97; 이은희, 2004:225). 특히, 상대높임법 체계는 학교 문법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이은희(2004:212)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은 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내용과 동일해서는 안 되며, 한국어 교육 내적인 문법 항목 선정 기준과 기술 방식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바 있으며, 박지순(2014ㄴ:78)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높임법 체계에 접근하는 방식과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는 양상은 국어 교육과 달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바로 하오체와 하계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의 정규 교재 가운데에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전체 상대높임법 체계 속에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제시하고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의 사용 연습까지 제시하는 교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교재마다 상대높임법의 교육 항목 및 교육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어 교육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어 교육 문법이 학문 문법이나 학교 문법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국어 교육 문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직 명확하게 나지 않은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문법의 확립을 위해서는 문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개별 문법 현상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은희, 2010:309).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하오체, 하계체 개별 어미의 사용 양상을 말뭉치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하오체, 하계체 교육의 필요성과, 적절한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바탕이 된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높임법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현대 국어에서 하오체, 하계체의 쓰임

현대 국어에서 하오체, 하계체 어미의 사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일찍이 남기심(1981:15)에서는 하계체가 쇠멸해가는 상태에 있다고 한 바 있으며, 이경우(2001:167, 2004:577~578)에서는 준구어 자료 분석을 통해 하오체와 하계체가 특정한 관계에서 드물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쓰임이 사라져 가고 있어 곧 사라질 등급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80)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은 하오체, 하계체를 특수형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

다. 준구어를 분석한 최석재(2007:405)의 결과에서 하오체, 하계체는 각각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지순(2015:86)의 준구어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하오체가 0.4%, 하계체는 0.2%로 현대 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비단 사용 빈도뿐 아니라 사용 맥락의 축소로도 이들 두 화계가 점차 소멸 중임을 알 수 있는데, 20세기 초 10대의 발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던(이익섭·임흥빈, 1983; 성기철, 1999) 하오체, 하계체는 현재 화자와 청자 모두 나이가 들 만큼 들어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익섭·채완, 1999:355, 358). 일례로 최석재(2007:408)에서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화자가 적어도 40대 이상, 청자는 20대 이상은 되어야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2005:43)에서는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변화 양상의 특징으로 하오체와 하계체의 기능 약화를 들었으며, 기능 약화를 사용 빈도의 감소와 사용 환경의 제약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이처럼 하오체와 하계체의 사용 감소는 현대 국어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두고 성기철(1999)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현대에 들어 해오체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화계의 쓰임 줄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이익섭·채완(1999:355, 359)에서는 권위주의가 퇴색하고 격식을 차리는 일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새 시대의 풍조가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오체, 하계체는 현대 국어에서 해오체와 해체가 그 쓰임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된 가운데 적극적인 높임말 또는 낮춤말이 되지 못하고 특정한 상대에 대해 정중한 대우를 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한다(임흥빈·장소원, 1995).

이와 같이 하오체, 하계체는 사용 빈도의 전반적인 감소, 활발히 사용되는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의 수의 감소, 종결어미 사용 맥락의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화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한 국어 교육의 교육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적 사용이 확인되고, 2. 문어의 특정 장르에서는 전형적인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3. 문학작품 등에서는 여전히 예사높임의 화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와 학습 목적에 따라 하오체, 하계체의 교수·학습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하오체, 하계체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화청자, 장르 등 하오하계체의 사용 맥락과 의미기능을 분석하여 사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의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한다.

2.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 개발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 중 구어 805,646 어절, 문어 803,267 어절 총 1,608,923 어절을 대상으로 하여¹⁾ 하오체와 하계체 종결어미가 사용된 발화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종결어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하오체, 하계체로 등재된 어미들로 하오체 어미가 총 25개, 하계체 어미는 29개였으며, 비표준어로 등재된 어미가 하오체, 하계체 각각 10개, 3개였다. 각 어미들의 이형태 중 대표형을 정해 분석하였고, 비표준어로 등재된 어미도 분석 대상

1) 세종계획 형태소 분석 말뭉치는 구어 805,656 어절, 문어 10,066,722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문어 말뭉치를 구어의 규모에 맞추어 약 80만 어절로 축소하였다. 이때 장르별로 균일한 규모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문어 형태소 분석 말뭉치의 구성

장르	어절 수	장르	어절 수	장르	어절 수
신문 기사	104,915	잡지	98,635	전문 서적	101,623
교양 도서	99,788	교육 도서	99,573	동화	103,498
수필	94,382	소설	100,853	총계	803,267

에 포함하여 해당 어미의 표준어 대표형으로 분석하였다.2) 분석 대상 종결어미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

하오체 종결어미	하계체 종결어미
-는다오, -니 다오, -다오, -라오	-을는지, -르 는지, -을런지*, -르 런지*
-읍시다, -버시다	-는다네, -니 다네, -다네, -라네
-으우, -우	-음세, -미 세
-으오, -오, -우*	-으세, -세
-습디다, -버디다, -읍디다*	-을세, -르 세
-습디까, -버디까, -읍디까*	-로세
-으리다, -리다	-데
-습딘다, -버딘다, -읍딘다*	-던가, -든가*
-습닌다, -버닌다, -읍닌다*	-네
-로구려, -로구료*	-는감, -은감, -니 감
-더구려, -더구료*, -드구료*	-느니, -으니, -니
-는구려, -구려, -느구료*, -구료*	-는가, -은가, -니 가
-쇼	-세나
	-계
	-계나
	-나

※ 진한 글씨체는 대표형을, * 표시는 비표준어를 나타낸다.

2) 비표준어 형태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표준어와 의미나 기능에 차이가 없이 구어에서 널리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 자료에서 ‘-으오’, ‘-을는지’, ‘-던가’의 경우 표준어 형태에 못지않게 비표준어 형태인 ‘-우’, ‘-을는지’, ‘-든가’가 많이 사용되었다. 구어에서 비표준어의 사용은 발음상의 유사성이나 문어보다 규범에서 좀 더 자유로운 구어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데, 구어에서 특정 어휘에 대하여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화자도 문어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표준어와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하오체, 하계체가 아닌 다른 화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표준어도 하오체, 하계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2.2. 분석 결과

2.2.1. 종결어미 출현 빈도

분석 대상 말뭉치에 출현한 종결어미의 타입과 토큰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어의 경우 종결어미가 총 83,917회 출현하였으며 문어에서는 62,451회 출현하였는데, 이 가운데 하오체는 구어체에서 126회, 문어에서 301회 출현하여 각각 0.2%, 0.5%의 비율을 보였다. 하계체는 구어에서 25회, 문어 126회 출현하였는데 이는 전체 종결어미 출현 횟수로 볼 때 각각 0.03%, 0.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하오체, 하계체 모두 출현 빈도가 극도로 낮은 가운데 특히 하계체는 구어에서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하오체의 출현 비중이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하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사용된 종결어미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자료에서 구어에서는 총 130종의 종결어미가, 문어에서는 165종의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오체는 구어에서 4종, 문어에서 9개종 사용되었고, 하계체는 구어에서 6종, 문어에서 9종이 사용되었다. 전체 분석 자료에 사용된 종결어미의 종류가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130종, 165종인 점을 고려하면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 모두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 출현 빈도

		전체	하오체(백분율)	하계체(백분율)
구어	타입(개)	130	4(3.1%)	6(4.6%)
	토큰(회)	83,917	126(0.2%)	25(0%)
문어	타입(개)	165	9(5.5%)	9(5.5%)
	토큰(회)	62,451	301(0.5%)	126(0.2%)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 화계 모두 구어에서와 문어에서 사용 양상이 다르다. 하오체의 경우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된 어미는 94회 출현한 ‘-읍시다’인 반면 문어에서는 ‘-읍시다’가 단 2회 사용되는데 그쳤다. ‘-읍시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시다’ 다음으로 ‘-소, -으오’의 사용이 각각 17회, 14회로 많았다. 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오체 어미는 ‘-으오’로 153회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가 91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소’의 경우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두 번째로 사용이 많았다. 한편, 하계체의 경우 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미는 ‘-데’였는데, 총 15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어에서는 단 1회만 사용되어 모든 어미들 중 가장 적은 빈도를 나타냈다. 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미는 ‘-네’로 36회 사용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던가, -는다네’가 각각 25회, 22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표 4> 종결어미별 출현 빈도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	구어(회)	문어(회)	종결어미	구어(회)	문어(회)
-는구려	-	16	-게	2	18
-는다오	-	7	-게나	2	6
-소	17	91	-나	-	10
-습디까	-	1	-네	1	36
-습디다	1	2	-는가	-	4
-우	-	19	-는다네	2	22
-으리다	-	10	-던가	-	25
-으오(-으시오)	14	153	-데	15	1
-읍시다	94	2	-으세	3	4
총계	126	301	총계	25	126

지금까지 하오체, 하계체 어미의 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두 화계 모두 다른 화계에 비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을 뿐더러 활발히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하오체의 경우 구어에서는 ‘-읍시다’, 문어에서는 ‘-으오, -소’, 하계체의 경우 구어에서 ‘-데’, 문어에서 ‘-네, -던가, -는다네’로 극

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용 빈도의 감소와 사용 종결어미 수의 감소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하오체와 하계체가 쇠멸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구어에서 사용되는 하오체, 하계체 종결어미가 분명히 존재하고, 문어에서는 구어에서보다 더 많은 종류의 종결어미가 더 빈도 높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하오체, 하계체를 교육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2.2. 사용 맥락 분석

본 절에서는 분석 자료에 사용된 종결어미의 사용 맥락 분석을 통해 하오체, 하계체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읍시다

하오체 어미 ‘-읍시다’는 구어에서 94회, 문어에서 2회 쓰여 구어에서의 사용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구어에서 ‘-읍시다’가 사용된 발화는 절반 이상이 연설, 강의, 강연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들 장르는 화자가 다수의 청자에게 공식적으로 발화하는 상황으로서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읍시다’가 연설, 강의, 강연에서 쓰인 경우는 전체 94회 중 50회로 53.2%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밖에 일상대화에서 사용된 경우는 26회로 전체의 21.3%, 토론이나 회의 발화에 사용된 경우는 17회로 18.1%, 즉흥적 독백에 사용된 경우가 1회로 1.1%에 해당하였다. 이때, 토론이나 회의 역시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비공식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분석 자료에서 대화/일상으로 코딩된 자료 중 상당수가 ‘수업대화_과외지도’, ‘주제대화_언어와사회토론’, ‘강의_콘서트#1’을 세부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 역시 다수 청자를 대상으로 하거

나 공식적인 대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즉흥적 독백의 경우에도 다수의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상황에서 사용된 점으로 본다면 구어에 사용된 ‘-읍시다’는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발화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어미로 볼 수 있다.³⁾ 특히 강의 발화에서는 ‘자, 봅시다’와 같이 특별한 의미 없이 다음 순서로 이행함을 나타내는 발화로 많이 쓰였다.

<표 5> ‘-읍시다’의 사용 장르

종결어미	출현 횟수(회)	백분율(%)
연설/강의/강연	50	53.2
대화/일상	26	27.7
토론/회의	17	18.1
즉흥적 독백	1	1.7
총계	94	100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화는 모두 6개로 아래 1-ㄱ, 1-ㄴ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나 1-ㄷ, 1-ㄹ에서처럼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로 ‘-읍시다’로 발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이다. 이처럼 분석 자료에서 ‘-읍시다’는 상관적 장면에서 특정한 청자 개인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3) 이와 관련해 박지순(2015:157)에서는 ‘-읍시다’는 아래사람이나 친구를 높여 대우하는 일반적인 하오체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기보다는 다수의 화자를 상대로 하는 격식적인 발화 장면에서 하십시오체와 유사한 맥락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에서는 ‘시간 좀 지킵시다, 줘.’ 또는 ‘고객님, DVD 반납 좀 합시다.’에서와 같이 명령의 의도를 완화하여 나타내거나, 청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1-ㄱ. 여행 갑시다 이러면서

1-ㄴ. ‘우리 모두 공탁합니다’ 어찌구저찌구 그러거든.

1-ㄷ. 우리 커피를 마십시다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야.

1-ㄹ. 그게 뭐뭐 그럼 거기서 계속 좇불 시위 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지 그 한총련 계열에서...

한편, ‘-읍시다’는 문어에서 단 두 차례 사용되었는데, 모두 동화에서이다. 아래 1-ㄱ의 경우 젊은 남성으로 그려지는 꿀벌이 그보다 젊은 아가씨로 묘사되는 나팔꽃에게 하는 발화로 꿀벌은 하오체를, 나팔꽃은 해요체를 쓰고 있다. 발화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된 동식물이고, 70년대에 쓰여진 동화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의 사용 양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이 하오체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아랫사람 또는 낯선 이에게 하오체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꿀벌은 아주머니로 불리는 호박꽃에게는 해요체를 쓰고, 반대로 호박꽃이 꿀벌에게 하오체를 쓰고 있다. 한편, 이 발화에서 ‘-읍시다’는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청자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ㄴ의 경우는 구체적인 화청자 사이의 발화가 아니라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를 독립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강대국들의 의견이 하나씩 나열되는 문장 중 하나로 실제로 발화된다면 강대국 대표들의 회의 자리에서 발화될 법한 문장이다. 구어 자료에 쓰인 ‘-읍시다’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발화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ㄱ.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얻읍시다.

1-ㄴ. 둘을 한 우리에게 넣어 싸움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갈라놓읍시다.

이처럼 ‘-읍시다’는 특정한 개인을 고려한 예사 높임의 화계로 사용되
기보다는 주로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장면인 ‘연설, 강
의, 강연, 설교, 토론, 회의’ 등의 장르에서 청자에게 화자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으오

‘-으오’는 구어에 14회 쓰였는데 사실상 문어에 쓰인 것을 그대로 읽
은 것이 8회이다. 동화구연을 전사한 것이 3회, 한시를 낭송하는 발화가
1회, 그리고 아래 2-ㄱ, 2-ㄴ과 같이 시험 문항의 지시문을 발화한 것이
4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어 발화에 쓰인 것은 6회에 그친다. 이 중 4회
는 대화 상대를 고려한 청자높임의 등분이 반영되었다기보다 아래 2-ㄷ,
2-ㄹ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되고, 그 외 일상적인 대화에 ‘-으오’가 쓰인 2회는 대학생들의 대화에
서 나타났는데, 청자를 고려한 화계 선택이라기보다 실제 화·청자의 관
계나 상황에 맞지 않는 고전적인 화계를 사용함으로써 아래 2-ㄱ, 2-ㄴ
에서처럼 익살스러운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어에 쓰인
‘-으오’가 청자를 고려한 예사높임의 화계로 쓰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 2-ㄱ. 단순히 뭐~ 한 한국과 뭐~ 일본에 관계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
면,
- 2-ㄴ. 이제 ‘논하시오’, 이런 문젠 안 내는 거지.
- 2-ㄷ. 병원에 가서 끝밀도를 찍어 보시오 하고 이런 걸 갖다가,
- 2-ㄹ. 어~ 기관 평가할 적에 각 그 대학들은 어~ 연구 과제를 하나씩
제시하시오,
- 2-ㄱ. 정말 미안하오.
- 2-ㄴ. 나갈 때 불 끄시오.

‘-으오’가 문어에 쓰인 경우는 총 153회로 사용된 장르를 보면 소설, 동화 등 허구를 다룬 문학 장르에서의 사용이 121회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수필에 쓰인 경우가 12회, 교양서적에 쓰인 경우가 13회, 잡지의 콩트에 쓰인 경우가 1회인데 이들 역시 모두 가상의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로서 아래 2-스과 같이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전적인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전래동화 등 고전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화자가 자신보다 뒷사람에게도 ‘-으오’를 사용하지만 현대가 배경인 경우는 주로 남성 화자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하위의 청자에게 ‘-으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익섭·채완(1999:358)에서는 중세국어나 근세국어는 물론, 개화기까지만 해도 하오체가 뒷사람에게 쓰는 말로 널리 쓰였으나 현대국어로 오면서 하오체가 쓰이던 자리에 해요체가 대신 자리 잡고, 하오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경어법으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아래 2-오, 2-스에서 보듯이 화자와 청자의 친소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예가 많다. ‘-으오’는 주로 사실을 진술할 때와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이며 명령이나 요청 등을 나타낼 때는 대부분 ‘-으시오’의 형태로 쓰였다.

2-스. 강릉 부사 분부로 대감께 아뢰오!

2-오. 그 누구요? 지금은 낮잠 자는 시간이니 좀 기다려 주시오.

2-스. 여보시오, 되도록 흥터가 크게 남도록 해 주시오.

나머지 전문서적과 교육용 서적에 쓰인 6회는 아래 2-츠, 2-크과 같이 ‘-으시오’의 형태로 연습 문제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 읽는 이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처럼 ‘-으오’는 구어에서보다 문어에서 더 많이 쓰였으며, 문어에서는 주로 동화, 소설, 수필 등에서 가상의 화청자 사이에 쓰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험문제 등

의 지시문에 ‘-으시오’의 형태로 그 기능과 형태가 한정되어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하오체의 ‘-으오’는 이러한 관용적인 용법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2-ㄷ. 아래에 제시된 제목을 하나 골라서 특이한 이야기를 꾸미시오.
<심리학개론>

2-ㄹ. 이것을 반증해 보시오.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

(3) -소

‘-소’는 구어에서 17회, 문어에서 91회 사용되어 절대 빈도는 문어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구어에 출현한 하오체 어미 중 ‘-읍시다’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으며 문어에서도 ‘-으오’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어에 쓰인 ‘-소’ 17회 중 동화를 들려주는 발화에 나타난 것이 1회,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발화에 나타난 것이 2회이고, 3-ㄱ, 3-ㄴ처럼 드라마 속 인물들의 말투를 분석해 특정 어미를 통해 일반화한 것이 8회였다. 이들 발화는 대화 상대자를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어미로 하오체의 ‘-소’를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일상대화에서 청자를 고려한 ‘-소’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발화는 총 6회였는데 대학생들끼리의 대화가 5회, 과외 수업에서 대학생과 지도학생과의 대화가 1회로 모두 하오체를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해당 화청자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계를 선택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3-ㄷ, 3-ㄹ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구어에 쓰인 ‘-소’는 ‘-으오’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고려한 일상적인 예사높임의 화계로 쓰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3-ㄱ. 그리구 억양이 굉장히 하강조구 뭐~ 고맙소 뭐~ 하더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하구,

- 3-ㄴ. 남자는 이랬소 저랬소 여자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이렇게
말투가 크게 난다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 3-ㄷ. 아 너무 어 너무 이거 당황스럽소 아주.
- 3-ㄹ. 감 감 감당 감당 못 하는 일은 하지 않겠소.

한편, 문어에 쓰인 ‘-소’는 동화, 소설에 쓰인 것이 69회, 수필에 쓰인 것이 6회, 교양서적에 쓰인 것이 15회, 교육 서적에 쓰인 것이 1회였다. 동화와 수필은 그 배경이 주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옛날인 경우가 많았고, 주로 남성 화자의 발화에 많이 쓰였으며, 아래 3-ㄱ에서처럼 사람뿐 아니라 동물끼리의 대화에서도 쓰였다. 교양 서적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남편과 아내, 사장과 바이어, 노인과 버스기사 등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남편, 사장, 노인 등이 ‘-소’를 사용해 발화하였다. 이때도 ‘-소’는 대부분 남성의 발화에 나타났는데 여성의 발화는 단 2회로 유명한 승려인 광덕의 처가 광덕의 동료 승려에게 교훈조로 이야기하는 발화에서였다.

- 3-ㄱ. 원숭이 나오리, 어떻게 오셨소? (화자: 오소리영감, 청자: 원숭이)

(4) -습디다

‘-습디다’는 구어에서 1회, 문어에서 2회 사용되어 문어에서나 구어에서 모두 그 쓰임이 매우 적었다. 구어에서 쓰인 1회는 학부모 대상의 강연에 등장하는데 아래 4-ㄱ에서와 같이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 알게 된 어떠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문어에 쓰인 ‘-습디다’ 역시 4-ㄴ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4-ㄱ. 사실은 그게 애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4-ㄴ.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그 지난번에 부르던 거 참 좋습니다.

(5) -습디까

‘-습디까’는 문어에서만 1회 사용되었으며, 아래 5-ㄱ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5-ㄱ. 그래서 맛이 어떻습디까?

(6) -우

‘-우’는 문어에만 19회 나타났는데, 이중 3건의 발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여성 화자들 간의 대화에 나타났다. 여성 화자들은 그 관계가 친자매, 친자매는 아니지만 매우 친밀한 언니와 동생 사이,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여성과 젊은 여성이었다. 각각 아래 6-ㄱ~6-ㄷ과 같은 발화가 등장했다. 친소 관계가 가까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주로 나이가 어린 쪽이 ‘-우’를 사용해 말했으며, 친소 관계가 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여성이 성인인 젊은 여성을 조금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ㄱ. 어려서부터 제 몸 하나는 끝내주게 챙기던 녀석 아니우? (화자: 여동생, 청자: 언니)

6-ㄴ. 언니, 결혼 생활은 재미있어요? 편지엔 어쩔 그리 신혼 재미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우? (화자: 친한 동생, 청자: 친한 언니)

6-ㄷ. 색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여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우’를 하오체로서 주로 나이가 든 여성들이

손위 동서나 언니 등의 친근한 손윗사람을 대할 때 쓰는 어미로 보고 있다. 분석 자료에 나타난 발화 중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의 발화에서도 ‘-우’가 4회 나타났는데 원작이 90년대 초반 소설인 데다가 작가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현대 국어에서의 일반적인 쓰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여성화자들 사이의 발화가 아닌 경우는 2회가 80년대 초반에 쓰여진 동화로 배경이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이고, 1회는 동물들이 주인공 동화에 나타나 현대 국어에서의 ‘-우’의 쓰임을 살피기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 분석 자료에 나타난 ‘-우’의 쓰임을 보았을 때 ‘-우’는 주로 소설, 동화 등의 문어 장르에 쓰이며 여성들 사이 특히 나이 든 여성 화자에 의해 많이 쓰이는 어미로 볼 수 있다.

(7) -는구려

‘-는구려’는 문어에만 16회 나타났으며 아래 7-ㄱ, 7-ㄴ에서 보듯이 주로 동화에서 감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발화에 쓰였다. 그밖에 교양서적에서 가상의 인물 간의 대화에도 등장하였는데, 7-ㄷ과 같이 설명을 위한 예시로서 등장하여 모어 화자들의 실제 대화에 가깝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발화할 때 ‘-는구려’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7-ㄱ. 갑자기 시원해져서 웬일인가 했더니 당신의 앞이 그늘지게 해주
는구려.

7-ㄴ. 아, 로로 먹이 때문에 왔구려.

7-ㄷ. 또 술을 마셨구려.

(8) -으리다

‘-으리다’는 문어에서만 10회 나타났다. 동화 1회, 교양서적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수필에 나타났으며, 8-ㄱ에서처럼 시와 같은 문학적 표현에

주로 나타났다. 수필에 나타난 ‘-으리다’는 구체적인 대화 상대를 가정하여 발화하는 상황에 쓰였다고보다 초월자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를 향한 화자의 다짐에 쓰였으며, 동화에 나타난 8-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쓰였으나 동물들 사이의 대화인 데다가 현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으리다’의 의미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경고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다”고도 하였으나 분석 자료에 나타난 용례는 모두 상대에게 화자의 의향을 말하여 약속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8-ㄱ. 한방울 핏물까지 고이고이 뿌리어서, 말법시대 오탁악세 보리심을 일구리다.

8-ㄴ. 당신들의 원수를 갚아 드리리다.

(9) -는다오

‘-는다오’ 역시 문어에만 7회 나타났는데, 모두 동화와 소설에서였다. ‘-는다오’가 등장한 동화의 배경은 아래 9-ㄱ과 같이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이거나 동화 자체가 70년대에 쓰여진 경우가 많았다. 분석 자료에 나타난 ‘-는다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마찬가지로 대화 상대에게 어떤 사실을 객관화하여 알려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9-ㄱ. 나도 날개 달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겁이 났었다오.

9-ㄴ.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가 대단하다오.

(10) -데

‘-데’는 문어에서 1회, 구어에서 15회 사용되었다. 구어에 사용된 15회 중 11회가 일상 대화, 3회가 즉흥적 독백에 쓰였으며, 나머지 1회는 강의에 쓰였다. ‘-데’는 화자 자신이 과거에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장

면에 옮겨와 말할 때 사용되는 어미로 해라체의 ‘-더라’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분석 자료에서 ‘-데’는 강의에서 40대 교수가 발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30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의 발화였는데 이것은 하계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령대도, 화청자 관계도 아니다. 하계체는 장인장모와 사위, 스승과 제자 등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우해서 말할 때라든지 중년의 장성한 친구들이 서로 존중해 말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 30대 화청자 간 대화에서 ‘-데’가 사용된 예는 아래 10-ㄱ, 10-ㄴ과 같다.

10-ㄱ. 아 부모님한테 패씸하데. (독백, 사관학교)

10-ㄴ. 근데 열라 말 버벅대고 못한다고 그러더니 말만 잘하데? (일상 대화, 후배와의 대화)

(11) -네

‘-네’는 구어에 1회, 문어에 36회 사용되었다. 구어에 쓰인 ‘-네’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동화 속 나무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모어 화자의 일상적인 발화라고 보기 어렵고, 문어에 쓰인 경우는 주로 소설이나 동화, 수필에 나타났으며, 소설에서는 아래 11-ㄱ에서처럼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또 수필에서는 승려가 후배 승려에게, 교양 서적에서는 일화를 가상의 대화로 꾸미면서 스승이 장성한 제자에게, 성인 남성이 친구에게 발화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리고 ‘-네’는 11-ㄴ와 같이 ‘여보게, 자네’ 등과 같은 호칭어, 지칭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자료에서는 하계체의 ‘-네’가 아니라 해체 또는 혼잣말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인 ‘-네’가 더 많이 등장했다.

11-ㄱ. 에이, 난 병원 싫네.

11-ㄴ. 자네 수학 점수는 정말 놀랍네.

(12) -던가

‘-던가’는 문어에만 25회 사용되었는데, 과거의 일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으며 ‘-네’와 마찬가지로 ‘그대, 자네’와 같은 호칭어, 지칭어와 같이 나타나는 발화가 많았다. 장르는 주로 소설, 수필에 사용되었다. 분석 자료에서는 하계체의 ‘-던가’보다는 특정한 화계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것이 더 많았다. 이런 경우는 주로 화계가 중화된 신문이나 소설의 서술에서 나타났다.

12-ㄱ. 살이 썩은 해골에는 구더기가 고이는 것을, 그대 역시 익히 보아 오지 않았던가

12-ㄴ. 정중 공부 십 년 보다는 동준 공부 일 년이 더 힘 있다고 한 말, 바로 자네의 격려가 아니었던가

(13) -는다네

‘-는다네’는 구어에 2회, 문어에 22회 나타났으며, 수필과 소설에 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이야기체로 쓰인 신문의 구절에 쓰인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을 청자에게 객관화하여 알려주는 의미로 쓰였고, 청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준다.

13-ㄱ. 여보게, 이 나이에 두려운 것 뭐 있겠냐만, 나 역시 신도들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까 그것이 두렵다네!

13-ㄴ. 우리 애가 비싼 돈 들여 유학까지 다녀왔는데도 이 모양이라네.

(14) -게

‘-게’는 구어에 2회, 문어에 18회 나타났다. 구어에서는 20대 남자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주제 대화에서 재미를 유발하게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

며, 문어에서는 소설, 동화에 주로 쓰여 상대에게 무엇을 할 것을 명령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화청자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계체가 사용되는 장인장모와 사위, 스승과 장성한 제자 간이었으며, 친구 사이인 성인 남성들 간에도 사용되었다. 아래 14-ㄱ은 장인이 사위에게 한 발화이고, 14-ㄴ은 선배 승려가 후배 승려에게 명령 또는 기원하는 발화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 ‘-으시게’의 형태로 상대를 더 예우해 주고 있다.

14-ㄱ. 자네가 좀 너그러이 살피주게.

14-ㄴ. 큰 스님 되시게!

(15) -나

‘-나’는 하계체로 쓰인 것보다 해체나 혼잣말에 쓰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하계체로 쓰인 경우는 문어에서만 10회 등장하였다. 의문을 나타내는 데 쓰였으며 주로 수필과 교양서적에서 대화문에 사용되었다.

15-ㄱ. 그 지갑은 어디서 샀나?

15-ㄴ. 이봐, 이걸 일이라고 했나?

(16) -으세

‘-으세’는 구어에 3회, 문어에 4회가 쓰였는데 ‘-나’와 마찬가지로 구어에서는 20대 남자 대학생들의 대화에서 재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문어에서는 동화와 수필에 사용되었다. ‘-으세’는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지만 몇 안 되는 용례에 아래 16-ㄱ과 같이 청자가 아니라 화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의미, 16-ㄴ에서처럼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 이것은 해라체의 청유형 어미 ‘-자’와 하오체의 ‘-읍시다’도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 ‘-읍시다’의

용례에서는 시킴이나 허락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16-ㄱ. 어디 좀 보세.

16-ㄴ. 하지만 기운을 내세!

(17) -게나

‘-게나’는 구어에 2회, 문어에 6회 사용되었고, 구어에서는 ‘-게’와 마찬가지로 하계체가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20대 남성 대학생들의 발화에 나타나 재미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어에서는 동화와 수필, 교양 서적의 대화문에 쓰여 선배가 장성한 후배에게, 스승이 장성한 제자에게, 나이 든 친구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17-ㄱ은 스승이 제자에게, 17-ㄴ은 친구 사이에 사용된 경우이다. ‘-게나’는 ‘-게’와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화자가 청자를 조금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가 느껴진다.

17-ㄱ.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학비에 보태 쓰게나.

17-ㄴ. 옛말에도 빚보증 썼다 안 떨어진 친구 없다고 하지 않던가? 차라리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게나.

(18) -는가

‘-는가’의 경우 문어에서만 4회 사용되었는데, 동화와 수필의 대화문에 나타났지만, 동화의 배경이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이고, 수필의 대화문은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상정하고 쓰였다기보다 독자를 후배 승려로 상정해 줄곧 후배에게 이야기하는 문체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는가’는 마찬가지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나’에 비해 화청자 간의 거리가 느껴져 좀 더 격식을 차린 특한 발화로 느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는가’는 현대 국어에서 하계체로서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기보다 화계가 중화된 문

어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8-ㄱ. 요즘 세상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가?

18-ㄴ. 네놈이 어찌 인간이라 하겠는가!

3. 한국어 교재의 하오체, 하계체 제시 양상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 5종에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어떤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그에 따른 교재를 개발한 국내 대학 한국어 교재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5종을 선택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적 지식을 체계로서 접근하지 않고 사용을 위한 지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경우에도 상대높임법 체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하오체, 하계체의 어미를 단계별로 위계화하여 교육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재를 살펴본 결과, 분석 교재에 문법 항목으로 나타난 하오체, 하계체 어미는 하오체의 어미 ‘-읍시다’ 한 가지였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1권에서 다루고 있었고, 서강대 교재에서는 2A에서 제시하고 있어 모든 교재가 초급 단계에서 ‘-읍시다’를 다루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에서 높임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이은희(2004:22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읍시다’는 분석 교재에서 모두 개별 청자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었다. 본고의 2장에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시다’는 일상 대화의 상관적 장면에서 개별 청자에게 청유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회의나 강연, 강의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제안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상 대화에 사용된 때에도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그 상황 사적인 상황이라기보다 공식적인 상황에 가까웠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어 교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읍시다’의 사용 맥락에 대한 정보가 실제 사용 양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자신보다 위사람에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와 같은 어색한 발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들이 개별 문법 항목으로는 하오체, 하계체 어미 중 ‘-읍시다’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밖에 교재마다 제시 방식 및 범위에 차이가 발견된다.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5권에서 상대높임법 체계 속에서 하오체, 하계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황과 대화 참여자에 따라 하오체와 하계체를 사용해 문장과 발화를 바꾸는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 하오체와 하계체를 이해 차원에서뿐 아니라 표현 차원에서도 익혀야 할 교육 내용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학교 교재와 서강대학교 교재는 이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고려대학교의 경우 본문 대화에 두 가지의 하오체 어미를 포함시키고 하오체에 대한 설명을 참고 문법의 형태로 예문과 함께 간략히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연습 문제는 없다. 서강대학교 교재의 경우에는 4A권에서 듣기 지문으로 하오체 어미 ‘-소’가 1회 제시되고 있는데 어미에 대한 설명이나 하오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어휘 차원에서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한국어 교재에 따라 하오체, 하계체의 제시 방식은 전체 상대높임법 체계 속에서 제시하는 지식적, 전통적 접근과 개별 어미만을 제시하는 개별적, 실용적 접근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어미의 교육 수준 역시 표현 항목으로서의 적극적 수준에서부터 이해 차원의 어휘로 접근하는 소극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각 기관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숙달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대높임법의 제시 범위나 목표 수준 등이 교재에 따라 편차가 클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해 이유경(2006:223)에서는 각 기

관마다 높임법 교육 항목과 범위 선정이 다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습자에게 좀 더 통일된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대 국어에서 개별 어미들의 사용 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과 숙달도 수준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표 6> 교재별 하오체, 하계체 제시 양상

교재	내용 및 특징
고려대 (6권 3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이야기1’ 코너의 교수와 학생의 대화문에서 교수의 발화에 ‘-네, -는가’가 사용되고, ‘문법 더하기’ 코너에 ‘하계체’에 대한 설명 아래와 같이 제시 <p>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든 경우, 자신보다 아래거나 친밀한 관계인 상대방을 존중하여 말할 때 쓴다. 이때 상대방을 ‘자네’나 ‘여보게’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p>
연세대 (5권 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1’ 코너에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해당 종결어미의 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문법 설명’ 코너에서 상대높임법 체계를 격식과 비격식의 2원 체계, 6개 화계로 제시 • ‘문법1’ 코너에서 하오체는 주의사항이나 지시문에 쓰이는 용법으로 한정하여 ‘-오, -소, -구려’를 대표 어미로 제시하고, 하계체는 사용 맥락을 화청자가 중년 남성인 경우로 대표 어미를 ‘-네, -나?, -게, -세’로 하여 예문과 연습문제 제시 • ‘문법 설명’ 코너에서 예사높임체(하오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약간 높여 표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하오체, 하계체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화청자, 장르 등 하오하계체의 사용 맥락과 의미기능을 분석하여 사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예사낮춤체(하계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이들을 약간 낮춰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이 든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며, 나이 많은 선생이 제자를, 혹은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를 아주 낮춰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설명 • 어휘 코너의 상대높임법 등급에 따른 호칭 학습과 연계
서강대 (4A 8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녀와 나무꾼’을 주제로 한 듣기 대화에 하오체 종결어미 ‘-소’ 1회 출현

4. 하오체, 하계체 교육 범위 및 내용

하오체, 하계체는 현대 국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어미가 구어에서 사용되고 있고, 문어에서는 소설, 동화, 수필 등의 문학 장르에서 대화문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목적 및 단계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학습 항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교육 범위와 수준의 측면에서도 하오체, 하계체 어미의 제시 범위,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시 여부, 표현 문법으로 다룰 것인지 이해 문법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등을 학습 목적과 학습 단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⁴⁾ 따라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라면 아직까지 비교적 사용이 활발한 일부 어미만을 개별 문법 항목으로 다루되, 어미에 따라 일상적 구어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표현 문법으로, 문어에만 등장하는 것은 이해 문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문 목적 또는 이주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라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와 같이 일상적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어미를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그에 더해 학문 목적의 경우 전공에 따라, 이주 목적의 경우 학습자 연령대와 숙달도에 따라 상대높임법 체계 안에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언어학, 언어교육학, 한국학 등의 전공 학습자에게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대높임법 체계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주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령에 따라 중도입국 학습자의 경우 정규 교육에서의 학업을 위해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개별 어미에 대한 학습도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

4) 같은 맥락에서 이유경(2006:218)에서는 학습 목적과 수준에 따라 높임법 범주를 달리해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특정 목적 학습자에게는 이해 수준까지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오체, 하계체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기회는 없더라도 고급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유경, 2006:222).

는데 이것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나 이주 목적의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교과서나 동화책, 전공 서적 등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서적의 범위가 더 넓어지므로 이에 따른 것이고, 이주 목적의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한국어로 된 각종 서적과 드라마나 사극 등에서 여전히 하오체, 하계체 어미가 사용되므로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일반 목적의 학습과정보다 개별 어미의 교육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개별 어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하오체, 하계체 어미는 구어와 문어에 사용된 비율을 고려해 표현 문법과 이해 문법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어에 비교적 활발히 쓰이는 하계체의 ‘-읍시다’와 ‘-데’는 표현 문법으로, 문어에 비교적 활발히 쓰이는 하오체 ‘-으오, -소’와 하계체의 ‘-네, -게, -던가, -는다네’는 이해 문법으로 교육하는 방안이다. 특히 ‘-으오’의 경우 각종 시험 문제나 안내문, 지시문 등에서 ‘-으시오’의 형태로 활발히 사용되므로 이러한 용법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어미 역시도 현대 국어에서의 실제적인 쓰임을 충실히 반영한 사용 맥락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목적과 이주 목적 학습자들은 하오체, 하계체 개별 어미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상대높임법 체계를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교육의 초점을 두는 일반 목적 학습자들과 달리 문법을 단순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의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하오체, 하계체 개별 어미의 사용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하오체, 하계체를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였

다. 하오체, 하계체의 사용 맥락과 의미기능을 분석하여 사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자료의 규모와 범위의 한계로 사용 양상을 완벽히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교육 내용에 대한 제언 역시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비롯된 하나의 제언일 뿐으로 차후 분석 자료의 규모와 범위를 보완해 각 어미들의 사용 양상을 좀 더 엄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하나의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구본관(2008).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경어법 교육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3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49쪽~779쪽.

김정호(2005). 국어 청자 높임의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16호, 한말연구학회. 43쪽~74쪽.

남기십(1981). 국어 존대법의 기능, <인문과학> 45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쪽~17쪽.

박석준(2005) 초급 한국어 교재의 청자 높임법, <한말연구> 17호, 한말연구학회. 85쪽~106쪽.

박지순(2014ㄱ).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 문제, <문법교육> 20호, 한국문법교육학회. 87쪽~118쪽.

박지순(2014ㄴ). 상대높임법 교육 관점 비교-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호, 한민족문화학회. 77쪽~102쪽.

박지순(2015). 현대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분석적 연구-일상적 준구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기철(1999). 20세기 청자 대우법의 변천-화계의 사회언어학적 변천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10(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쪽~45쪽.

유험재(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70호, 국어학회. 59쪽~83쪽.

이경우(2001).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 <국어교육> 106호. 143쪽~174쪽.

이경우(2004).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국어교육> 113호.

545쪽~587쪽.

- 이유경(2006).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기초 연구-텔파이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31호. 197쪽~225쪽.
- 이은경(2002).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사용 분석-1단계 교재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7호. 409쪽~438쪽.
- 이은희(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높임법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5호. 207쪽~231쪽.
- 이은희(2010).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 교육> 13호. 281쪽~315쪽.
- 이익섭 ·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익섭 · 장소원(1997) 『국어문법론1』.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익섭 · 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임동훈(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호, 국어학회. 287쪽~319쪽.
- 최석재(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서울 지역 구어(口語) 환경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7호. 397쪽~432쪽.

박지순(Park Jisoon)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157-85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54

전화번호: 044-203-2535

전자우편: jsbak11@korea.kr

접수일자: 2015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6월 15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7일